

타운뉴스칼럼

비 내리던 날

인창해  
타운뉴스 발행인



사무실 계단을 오르는데 천장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고 있었다. 작년에 물이 새서 수리를 했는데 그자리가 또 샌다. 그때 고쳐준 분께 전화를 하니 받지 않는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다.

마침 앞 사무실 대표가 한 사람을 소개해 주어 전화하니 바로 달려와 주었다. 그리고 다음날 와서 보수를 했다. 사진까지 보여주며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 거기에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했다.

그러나 비가 제법 오자 여전히 썼다.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진 물이 계단을 타고 흘러 아래층 바닥에 물이 고여 있어 여간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니었다. 연락하니 비 그친 뒤에 보잔다. 비는 하염없이 내렸다. 낮에도 밤에도.

그칠 줄 모르고 비가 내리던 지난 주 월요일 친구가 같이 점심먹자고 문자를 보냈다. 국밥집에서 만나기로 했다.

비가 억수같이 퍼붓는다. 도로가 침수되어 자동차들이 물속을 헤엄치듯이 다니고 있었다. 식당에 앉아 왼편을 보니 양동이 놓여 있다. 가만히 보니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었다. 무심코 내가 앉은 자리 바닥을 보니 흥건히 젖어 있지 않은가. 내 오른편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 내 쪽으로 흘러와 고여 있는 거였다. 좌우가 다 새고 있었다.

친구가 비새는 것을 보고 말했다. 자기가 세 준 집도 샌다고 세입자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하며 식사 후에 가야한다고 말했다. 식사를 마치고 맥도날드로 갔다. 맥도날드 들어서자마자 왼쪽에 파란 줄이 쳐있고 테이블 위에 양동이 놓여 있다. 맥도날드도 샌다. 가는 곳마다 새고 있었다.

친구가 커피를 입에 대려는 순간 전화가 왔다. 세입자의 전화였다. 지하실 벽에도 물이 스며들고 있다며 언제 올 거냐고 묻는 전화였다. 친구는 서둘러 떠났다. 혼자 남아 천장에서 떨어지는 낙숫물을 바라보고 있자니 어린 시절 빨래걸 살던 때가 떠올랐다.

그때 우리가 살던 집은 비만 오면 이곳저곳에서 물이 썼다. 빗물이 새는 천장에는 실을 달아 놓아 실 따라 물이 흘러내리도록 하고 바닥에 양동이나 세수 대야 등을 받쳐 두었다. 그리고 가득 차기 전에 밖에서 버리고 다시 받쳐 놓았다. 비가 많이 올 때는 부엌 바닥에서 물이 솟기도 했다. 방안에 새는 비는 차는 대로 갖다 버리면 해결되었지만 부엌 바닥에서 솟구치는 물은 계속 퍼서 밖으

로 내다 버려야 했다. 어린 동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지방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고, 어머니와 초등학교 다니는 내가 밤을 새어 가며 물을 퍼내야 했다.

한 번은 옷집의 축대가 무너져 우리 집을 덮쳤다. 건물이 무너지거나 손상되지는 않았으나 흙무더기가 건물에 닿아 있었고, 비는 계속 내리고 있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어머니와 나는 흙을 퍼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 했다. 우리 집만 그런 것이 아니고 빨래걸 사람들은 모두 비가 올 때마다 방에서 물을 받아냈고, 부엌에서 물을 퍼냈었다. 1960년 대 빨래걸 이야기이다.

하늘에 구멍이 난 것처럼 비가 쏟아졌다. 남가주에 거의 1년 동안 내릴 비가 단 3일 동안 퍼부었다. 300여 곳에서 산사태가 났고, 40여 채의 주택과 건물이 파손됐다. 이번 폭우는 1877년 강우량 측정을 시작한 이래 역사상 세 번째 많은 강우량으로 기록되었다. LA 고지대인 볼드윈 힐스 지역, 베벌리 글렌 지역, 벨에어 등지에서 발생한 산사태 등으로 이 지역 주민들은 지금도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폭우로 도로가 움푹 파이는 팟홀도 많이 생겨 이로 인한 차량 손상과 사고도 이어지고 있다.

2024년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영락없이 1960년대 한국의 모습이다. 사람들은 '남가주가 사막지역이라 배수 시설이 부족해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1993년 내가 미국에 오던 해부터 비가 많이 올 때마다 듣는 소리다. 하지만 비록 사막지대라도 폭우 등 우기에 발생할 수 있는 일에 충분히 대비했다면 비로 인한 불편과 피해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서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도 결코 예외일 수 없다. 지진과 가뭄, 산불, 폭염에 더해 이제는 폭우까지. 인간이 자연을 이길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시나 카운티, 주 정부를 비롯한 각 지방 정부부터 연방 정부에 이르기까지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꼼꼼하게 예측해 그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들 각 개인들도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거안사위(居安思危). 편안할 때 그 편안함에 안주하지 말고 나중에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는 말이다.

chahn@townnewsusa.com

타운뉴스



제1511호 목차

- 타운뉴스칼럼..... 13
- 커뮤니티 소식..... 15,17
- 세상에 이런 일이..... 19
- 나는야 1.5세 아줌마..... 20
- 법률..... 21
- 우리 동네 걷기 좋은 곳..... 23
- 전문인 칼럼..... 28,29,38
- 숨은그림 찾기,답/날말 퀴즈,답..... 30/53,30/49
- 부동산/경제..... 31
- 건강..... 37,38,39
- 자동차..... 41
- 깔깔..... 43
- 한인업소 안내지도..... 44,46,60,62,64
- 요리..... 45
- 사진여행..... 47
- 연예..... 51,53
- 종교..... 52
- Domestic..... 56
- 안내광고..... 54,55
- 여성..... 59,61

역학의 관점에서 본 자녀의 적성과 전공은 무엇이 최선일까요?

건강운, 재물운, 결혼운, 재능운, 풍수, 작명

714.623.7005  
전화 상담/예약필수 @scarletsun27 Lindam22

기주장익시

매장·화장·묘지주선·이장·장례보험등  
•넓은 주차장 •교통 편리 (LA, OC-20분)  
•저렴한 비용으로 봉사하여 드립니다.

24시간 대표: 정영목 목사  
9830 Lakewood Blvd., Downey, CA 90240  
TEL (562)622-9393

Keon-Jung Kim Dental Corp.

IMPLANT, COSMETIC, ORTHODONTIC & LASER DENTISTRY ORAL SURGERY

www.timkimdental.com

터스틴

김건중 종합치과

39년 임상경험의 치아이식 전문의 및 4명의 각 치과 전문의와 함께 모든 치과진료를 한곳에서 받을수 있는 종합치과

Our clinic is DISINFECTED and SAFE to VISIT

일반·미용치과 전문

Maria Capiral, DDS  
William Wang, DDS  
Diemphi Nguyen, DDS

교정치과 전문

Jin Kim, DDS, MS  
Columbia 명문대 졸업  
미국 board certified orthodontist  
(미국 교정치과 보드 전문의)

임플란트/구강외과 전문

Timothy Kim, DDS, MS, Ph.D

뼈가 부족한 분에서도 자가혈에서 채취한 PRP와 CGF를 이용한 뼈이식과 임플란트 수술 가능

- 3차원 CT 촬영으로 정확한 진단과 수술
- Surgical Microscope을 이용한 섬세한 외과수술 및 동영상 촬영
- 레이저를 통한 무마취·무출혈·무통 잇몸치료

Address 2492 Walnut Ave. #200, Tustin, CA 92780  
tel. 714-760-4988 949-679-6000  
(San Diego) 760-757-9876 760-479-9876



NEW LOCATION TO BETTER SERVE YOUR DENTAL NEED

KEON-JUNG 'TIMOTHY' KIM  
구강외과/치아이식 수술전문 ORAL SURGERY  
D.D.S., M.S.D., Ph.D.

- 대한 구강악안면 외과 board certified specialist
- 인천 중앙 길병원 치과 구강외과 주임과장 역임
- 대한 구강악안면 상형재건외과학회 지도의 역임
- LSU 치대 구강악안면외과 Postgraduate Fellow 역임
- LSU 치대 구강악안면외과 조교수 역임
- New Orleans Charity Hospital 구강외과, 치아이식과 임상과장
- 미 치아이식학회 (AAID, AO)회원
- ADA, CDA, OCS, KADA 회원